

사회

외상값 갚으려... 인건비 빼먹은 공무원

지인 친인척 동원 공공근로 허위 작성 6000여만원 횡령

감사원 적발... 여수시는 경관조명 6억 낭비도

외상값을 갚기 위한 한 공무원의 기막힌 인건비 횡령 사건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또 말쑥 많았던 여수 야간 경관사업과 웅천 인공해수욕장 사업은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지적됐다.

◇친인척 동원 인건비 착복=광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인 신모씨는 지난 2008년 2월 단골 음식점 주인으로부터 밀린 외상값 독촉을 받고 모책(?)을 생각해냈다. 당시 신씨는 광주시에 64여원을 들여 도심 곳곳에 꽃잔디를 심는 가로화단조성공사에 참여한 공공근로자 명단을 작성해 올리는 일을 했다.

신씨는 음식점 주인 A씨와 A씨가 족들을 가로화단조성공사에 참여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다. 이 작업에는 A씨와 그의 장모 등의 명목이 동원됐다. 공공근로 인건비가 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되는 것을 악용해 A씨 친인척을 동원한 것이다.

일을 하지도 않은 A씨 가족의 통장에는 얼마 후 600만원이 입금됐고, A씨는 외상값 대신 이 돈을 챙겼다. 또 신씨는 비슷한 시기, 자동차 수리비 지급을 요구한 B씨 등에게 같은 방법으로 외상값을 갚았다.

한번 재미를 본 그는 더 많은 돈을 빼돌리기 위해 자동차 공업사 업무와 부인, 업주 친구 어머니, 업체의 상무·정비사·공장장 등 13명의 명목이 동원됐다. 이 같은 방법으로 신씨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인건비 6025만원을 부풀려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천만원이 빠져나가는데도, 감사의 눈은 없었다.

농업기술센터 탐장과 회계 담당이었던 노모씨와 김모씨는 신씨의 허위 인건비 지급요청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감사원 조사 과정에 이중씨는 지난 2008년 2월 단골 음식점 주인으로부터 밀린 외상값 독촉을 받고 모책(?)을 생각해냈다. 당시 신씨는 광주시에 64여원을 들여 도심 곳곳에 꽃잔디를 심는 가로화단조성공사에 참여한 공공근로자 명단을 작성해 올리는 일을 했다.



휴가철 축산물 위생점검

두고 삼겹살과 닭고기 등에 대해 8월말까지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찰에 고발하고 광주시에 파면을 요구했다. 광주시는 지난달 2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신씨를 파면조치하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2명의 농촌지도관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의 징계조치를 했다.

◇날이간 혈세=여수시가 야간경관사업을 하면서 필요없는 시설설계로 6억원, 유람선 운영업체 선정 과정에서 1억여원을 낭비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4일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시·관공 등 시설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여수시는 야간경관사업 과정에 별도

의 시설설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6억1000만원을 낭비했다"고 밝혔다.

또 거북선형 유람선 건조·운영 사업 민간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면서 공모 규정을 바꾸는 등 부적절하게 사업을 진행했다가 선정 업체에 1억1000만원을 물어준 사실이 적발됐다. 여수시가 87여원을 들여 웅천지구 인근에 조성한 인공해수욕장은 짝은 모래 유실로 흥물이 됐고, 올해에 만 3000만여 어치의 모래를 보충해야 하는 등 해수욕장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수억 면세유 빼돌려 도박

여수해경, 수협직원 등 16명 적발

수억 원 상당의 어업용 면세유를 빼돌려 판매한 뒤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수협직원 등 16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경경찰은 4일 3억원 상당의 면세유를 빼돌린 고흥 수협 직원 양모(38)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범행에 가담한 고물상 업주 이모(52)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해경은 양씨로부터 면세유를 저렴한 가격에 사들인 박모(67)씨 등 13명을 동일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수협 면세유 담당자 인 양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어민들에게 지급한 면세유의 지급량을 부풀리거나 허위 출고지시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시가 3억원 상당의 면세유 17만ℓ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모델, 농장, 건설기계 등에 사용하기 위해 양씨로부터 면세유를 사들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양씨는 면세유를 판매하고 받은 2억3000만원을 도박 자금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취재본부=김청희기자 chkim@

나원침 (8602) 김중두



아들 설치 CCTV에 딱 걸린 '짐승'

담양 90대 할머니 성폭행범 붙잡혀

순천에 거주하는 조모(48)씨는 담양에 혼자 살고 있는 노모(91)가 이따금 "집에 있는 반찬이나 물건들이 없어지고, 누가 내 몸을 자꾸 만진다"고 말해 치매 증세를 보이는 줄 알았다.

최근 들어 자꾸 같은 말을 하자 조씨는 홀로 지내는 어머니가 걱정됐다. 그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지난달 말 100여만원을 들여 어머니집에 CCTV 4대와 DVR(카메라에 잡히는 영상을 디지털 화해 하드디스크에 압축·저장하는 최신 영상장치)을 설치하고, 항상 살펴볼 수 있도록 자신의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원격 연

결했다.

조씨는 지난 2일 오후 CCTV를 확인하다가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 한 동네에 사는 김모(68)씨가 대낮에 어머니에게 몸을 짓을 하는 현상이 찍혀 있었던 것이다.

영상에는 김씨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마당에 있던 조씨의 어머니를 추행하는 영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김씨는 아흔이 넘는 어머니를 거실로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한 뒤 유유히 사라졌다. 전날 밤 어머니집 담을 넘는 장면도 나왔다.

아들은 CCTV를 증거로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했지만 담양경찰은 4일 그를 성폭행 혐의로 구속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성추행 후 얼굴 때려 동부경찰, 20대 영장

광주동부경찰은 4일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을 성추행한 뒤 폭행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정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 1일 새벽 4시16분께 광주시 동구의 한 길거리에서 A(여·25)씨의 몸을 손으로 더듬은 뒤 주먹을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만취 학부모 학교 찾아가 교직원 폭행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찾아가 교직원을 폭행하고 행패를 부린 김모(46)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10시 30분께 자신의 딸이 다니고 있는 여수 모 초등학교에 전화를 걸어 딸이 몇반인지 알려달라고 요구, 전화를 받은 교직원 A(38)씨가 수업중이어서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전화를 끊은 데 앙심을 품고 학교에 찾아가 A씨를 가위로 위협하며 무릎을 꿇게 한 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

김씨는 "김씨가 만취 상태로 학교에 찾아가 교직원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행정실 업무를 방해했다"며 반성이나 개전의 정이 없어 구속시켰다고 설명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장례식장 운영권' 사기

박성섭씨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대학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주겠다고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된 조선대 학교법인 전 이사 박성섭(6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는 조선대 설립 대표의 차남으로 이 학교법인 이사를 지내다 1988년 학내 분규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연합뉴스

개통 6일 목포대교서 30대 투신 사망

안전사고 우려 현실로

지난달 29일 개통하자마자 무단정차, 행인 출입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 우려(본보 7월3일자 11면)가 제기됐던 목포대교에서 30대 남성이 뛰어내려 숨졌다.

4일 오후 5시10분께 목포대교에서 광모(33·목포시)씨가 목포대교(교량 길이 3.1km) 북향방향 500m지점에서 투신, 해경에 의해 구조돼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광씨는 행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119에 전화를 걸어 "목포대교에 해상 투신자가 있다"고 신고한 뒤 50m 아래 해상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목포해경 서산파출소 순찰장이 현장에 출동해 10여분만에 광씨를 건져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119구조대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소생하지 못했다.

광씨를 구조한 이영진(30) 경장은

"발견 당시 물에 뜬 상태로 의식을 잃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맥박이 돌아온 것을 확인했는데 숨겨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초동조치가 빨라서 희망을 품었는데, 다리가 워낙 높아 충격이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목포대교는 개통하자마자 운전자들이 갓길에 차를 무단정차, 경관을 방해하는 바람에 교통체증은 물론 사고위험이 커 경찰이 단속에 나섰다.

/서취재본부=김병민기자 dss6116@

미화원이 채용 미끼 역대 쟁거

광주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4일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해주겠다고 구직자들에게 역대 돈을 받아 쟁거 광주시 남구청 쓰레기 수거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조모(43)씨를 근로기준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지난 2009년 2차례에 걸쳐한 구직자로부터 3500만원을 받고 채용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구직자는 실제로 환경미화원으로 취직했

다.

그러나 조씨는 이외에도 2008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다른 3명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모두 8000만원을 받았으나 이들이 채용되지 못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경찰청지정 운전면허 시험장

트레이러 대형 1,2종보통 2종소형(오토바이)

휴일에도 접수·교육 합니다.

문자면허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광주 최대의 규모 ▶ 깨끗한 환경 ▶ 친절한 강사진

학원에서 교육한 차량으로 주5회 장내·도로 자체시험 실시

- 새벽반, 야간반, 주말반 운영
- 2012년 7월 부터 수강료에 부가세 과세확정
- 교재무료 배부
- 11월부터 도로주행 시험강화로 수강료인상 예정
- 셔틀버스 운행

“공원같이 아늑한 학원전경”

위치: 신가동 사거리 분향교회 옆, 중앙아동병원 앞 ☎062-951-5100

트레이러 대형 1,2종보통 2종소형(오토바이)

휴일에도 접수·교육 합니다.

문자면허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광주 최대의 규모 ▶ 깨끗한 환경 ▶ 친절한 강사진

학원에서 교육한 차량으로 주5회 장내·도로 자체시험 실시

- 새벽반, 야간반, 주말반 운영
- 2012년 7월 부터 수강료에 부가세 과세확정
- 교재무료 배부
- 11월부터 도로주행 시험강화로 수강료인상 예정
- 셔틀버스 운행

“공원같이 아늑한 학원전경”

위치: 신가동 사거리 분향교회 옆, 중앙아동병원 앞 ☎062-951-5100